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총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회장'이라는 호칭에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새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분들에게 내 이름이 그게 아니라 이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4-5주간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총회장이라는 소개를 했지만 많은 분들은 건성으로 듣고 대화 가운데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총회장'이라는 두 마디만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국인이고 회장이라니 분명 한국교회 어떤 단체 회장인가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와서 확인을 하고 축하를 하곤 했습니다. 확실히 '개조'가 '창조'보다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제 134차 총회장으로 섬기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 귀한 책임을 위해 부름을 받으면서 한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저를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결론은 교회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 저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교회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모두가 시대에 뒤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자세히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

는 적절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이 사회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앞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기를 거부했던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며 교회 안에 떨어지는 어려움을 청소하기에 바쁜 모습입니까?

지역교회에 변화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장로교인의 정체성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단히 복잡한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장로교인이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는 커녕 인정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많은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동시에 가능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격려, 위로, 그리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회, 목회, 예배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올해에 모든 당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 한가지를 시도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필요했지만 어



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던 것 한가지를 찾아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찬송일수도 있고 설교의 새로운 스타일일수도 있으며 전도구제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한가지를 선택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기꺼이 베풀겠다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캐나다 장로교회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말 훌륭한 교회 조직, 그리고 견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마치 외딴섬에 잘 지어 놓은 오래된 성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아예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텅 비어 있는 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동네와 공동체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을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